아쉽다! 꼴운도 없었고 첫 홈장승도 없었다!

– 연변룡정팀 불산남사에 0 대 1 홈장패

11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연길시전민건강중심경기장에서 진행된 2024 중국축구 갑급리기 제30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불산남사팀에 0 대 1로 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연변팀은 문지기에 동가림을 세우고 수비선에 리달, 서계조, 왕붕, 김태연을 배치했으며 중앙선에 로용개저, 천창걸, 왕성쾌, 리룡을 두고 공격선에 양경범과 림태준을 내세운 4-4-2 공격 진영을 들고 나왔다.

불산남사팀은 문지기에 고예흠, 수비선에 요휘, 황위, 요새룡, 장란을, 중앙선에 황옥심, 장자초, 리찬명, 오욱신, 유요흥을, 공격선에 엽자민을 내세운 4-2-3-1 진영으로 맞섰다. 승격이나 강등과 무관하게 압력이 없는 경기를 앞두고 두 팀 모두 전화반(全华班) 진영으로 명년 시즌을 위한 실전 련습 모드를 취했다.

이날 경기는 시즌 마지막 경기로 남경, 심양, 대련, 중경, 연길, 석가장, 할빈, 서창 등 8개 경기구에서 동시에 시작되였다. 경기 결과에 따라 슈퍼리그 진출팀과 을급리그 강등팀이 산생되게 되는 관건적인 경기들이 남경, 대련, 할빈, 서창 등 4개 경기구에서 진행되여 주목받았다. 연길 경기구는 이기형 감독 체제에서 첫 홈장승인가가 팬들의 관심사로 되였다.

올 시즌 연변팀의 사령탑을 잡은 3명 감독들의 상호 성적도 관심사로 나섰다. 12라운드를 지휘한 김봉길 감독이 16점을, 6라운드를 지휘한 이반 감독이 2점을, 11라운드를 지휘한 이기형 감독이 13점을 기록해 이번 경기에서 이겨야 김봉길 감독과 비긴다는 흥미로운 일이 팬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오전에 내린 가을비로 날씨는 한결 싸늘해졌지만 시작을 알리는 호각소리와 함께 장내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불이 당겨졌다. "전투! 연변!", "승리하자! 연변!", 축구팬들의 응원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두 팀은 절주 빠른 밀고 당기기로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경기 8분경, 연변팀의 리룡이 첫 슛을 날렸으나 상대 문지기에게 거둬들여졌다. 경기 10분이 되기까지 쌍방은 그렇다 할 공격을 조직하지 못했고 위협적인 슛도 날리지 못했다. 김태연이 출격한 오른쪽 변선 진공이 비교적 날이 섰는데 14분경의 한차례 위협적인 공격에서 하마트면 불산남사팀이 자책꼴을 만들 번했다. 연변팀이 점차 경기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였고 15분경과 16분경에 비교적 위협적인 공격을 조직하며 불산팀에 압력을 가했다.

경기 30분이 되도록 쌍방은 상대의 꼴문을 열지 못했고 점수 게시판은 0 대 0에 고정되였다. 공 점유률에서 연변팀이 58 대 42로 앞섰지만 우세는 승세로 이어지지 못했다. 33분경에 왕붕이 반칙으로 첫 옐로카드를 받았다. 불산남사도 몇차례 공격을 조직하였지만 번번이 연변팀 수비에 걸렸고 37분경 양경범선수가 절호의 단독 돌파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 41분경에는 상대 수비의 실수로 좋은 기회가 차례졌지만 또 꼴문 밖으로 흘러나갔다. 1분간의 경기 추가 시간이 주어진 가운데 연변팀은 단독 돌파로 빈 꼴문을 마주한 기회를 창조했지만 림태준선수가 다시 한번 랑비했다.

후반전 들어 47분경, 왕성쾌선수가 금지구역 앞에서 프리킥 기회를 만들었고 키커로 나선 김태연선수가 호선공을 날렸지만 간발의 차이로 꼴문 밖으로 흘러나갔다. 불산남사도 몇차례의 반격을 조직하였지만 연변팀의 수비선을 뚫지 못했다.

승리에 대한 욕망은 연변팀이 강했다. 공을 잡으면 곧바로 공격을 조직했고 공격의 칼날은 상대 문전으로 이어지군 하였다. 하지만 굳게 닫힌 꼴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되려 56분경 한차례의 반격 기회에 렬세에 처했던 불산남사가 연변팀의 꼴문을 갈랐다. 0 대 1, 홈장에서 연변팀이 선제꼴을 내주고 추격하는 상황이 되였다.

56, 57분경 연변팀이 상대의 꼴문앞까지 밀고 들어갔지만 번번이 실패, 59분경에는 서계조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장 밖에 나와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다. 62분경, 연변팀은 류박과 왕빈한으로 로용개저와 림태준을 교체하여 출전시켰다.

연변팀 선수들의 조급 정서가 실수를 많이 불러왔다. 시즌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려는 그런 심리가 젊은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압력이 된 것이다. 70분경, 연변팀은 리금우로 왕성쾌를 교체하여 출전시켰다.

공 점유률과 슈팅 차수 등 면에서 모두 우세를 차지한 연변팀에 꼴운이 따라주지 않았고 조급 정서는 실수를 불러온 동시에 체력 소모를 배로 늘였다. 78분경 호재겸으로 리달을 교체하고 장오개로 양경범을 교체했지만 상대의 꼴문은 열리지 않았다.

경기 추가 시간이 3분 주어졌지만 최종 연변팀은 기회 포착과 최후의 슈팅 미숙 등 원인으로 수차의 득점 기회를 놓치고 0 대 1로 패배했다. 이기형 감독의 첫 홈장승은 명년 시즌으로 미루어졌다.

이날 9,526명 축구팬들이 현장을 찾았다.

한편 같은 시각 기타 경기장들에서 진행된 경기에서는 남경도시와 광주팀이 2 대 1, 대련영박과 상해가정회룡이 2 대 1, 석가장공부와 소주동오가 2 대 0, 료녕철인과 운남옥곤이 2 대 1, 중경동량룡과 광서평과하료가 1 대 1, 흑룡강빙성과 청도홍사가 2 대 1, 강서려산과 무석오구가 2 대 0을 각각 기록하여 운남옥곤과 대련영박이 슈퍼리그에 진출하고 무석오구와 강서려산이 나란히 을급리그로 강등했다.

/ 김태국 김파 기자

김독초대석

이기형 감독 "래년에 홈장 승리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

11월 3일 오후, 연길시전민건강중심경기장에서 펼쳐진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30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은 불산남사팀에 역습으로 한꼴을 내주면서 아쉽게 0 대 1로 패했다.

경기후 있은 기자회견에서 연변룡정팀 이기형 감독은 "부임한 후 홈장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오늘 좋은 경기를 펼쳐 승리하려고 잘 준비하였는데 그런 부분이 경기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아쉬웠다."며 "래년에는 홈장에서 승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홈장 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추운 날씨에도 경기장에 와서 응원해준 모든 팬들에 감사하다. 올 한해 동안 수고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래년에는 잘 준비해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표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단계의 팀 계획에 대해 이기형 감독은 "먼저 휴식을 한 다음에 12월달부터 바로 훈련을 시작하겠다. 선수 구성을 비롯해 여러가지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훈련량을 더 늘여 선수들을 단련시키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김파기자

한련호,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대회서 우승

11월 2일, 2024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대회가 연길시풍무음식유한회사에서 펼쳐진 가운데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 산하 8개 분회의 30여명 장기고수들이 참가해 불꽃 튕기는 장기대국을 펼쳤다.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 상무부회장인 김창호는 이번 민속장기대회는 장기로 여러 민족 군중들 사이의 우정과 단합을 추진하고 조선족민속장기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펼쳐보임과 동시에 곧 펼쳐지게 되는 국제장기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장기대회에서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 공원분회의 한련호가 우승을 차지하고 신흥분회의 조룡호, 공원분회의 한영찬, 북대분회의 리세민, 신흥분회의 리근, 하남분회의 엄혁우, 공원분회의 김철수, 철남분회의 조귀철 등이 2등부터 8등까지 차지했다.

한편 지난 2005년도에 설립된 연길시조선족민속장기협회는 산하에 8개 분회에 18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데 민속장기 고수들이 운집해있다. 이번 장기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조룡호는 국제장기대회에서 두차례나 우승의 영예를 따낸 장기고수이기도 하다.

/ 안상근기자, 최승진

▲ 1등부터 3등까지 차지한 한련호(가운데) 조룡호(왼쪽) 한영찬

톡톡 관전평

'홈장승 끝내 물거품'

이감독, 아쉬움 뒤로하고 래년 기약

이런 씨나리오는 없었다. 올 시즌 마지막 경기였고 지어 그 경기가 안방이라서, 나아가 승리가 필요했던 시점에 때마침 해볼 만한 상대라서… 큰 확률로 홈장승 가능성이 대두되던 와중에 그 확률을 뚫고 가장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11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연길시전민건강중심경기장에서 진행된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30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불산남사팀에 승리를 내줬다. 오매불망 그리던 이기형 감독의 첫 홈장승도 물거품이 됐다.

"이래도 꼴이 안 들어간다고?" 경기후 데이터를 살펴보면 연변팀은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슈팅이 12회였다. 불산남사는 고작 5회뿐이였는데 말이다. 위험공격도 102 대 46으로 연변팀이 압도적이였다.

그런데 결과가 갈렸던 건 불산남사가 단 1회의 유효 슈팅을 결승꼴로 련결시켰다는 점이다. 반면 연변팀은 10회가 넘는 슈팅을 터뜨리고도 유효 슈팅이 고작 2회 밖에 안되였다. 거기다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지!' 하는 기회를 한번 또 한번 놓치며 땅을 쳐야 했다.

데이터를 화려하게 가져오고 결과를 초라하게 내줬으니 그 속에서 두드러지는 건 이런 결과를 낸 문제점들이다. 빈약한 꼴 결정력에 울어야 했고 중원에서의 원활하지 못한 공격 전개로 결정적인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후방에서의 패스 실수는 치명적인 실점으로 이어졌다. 여러번 제기되던 문제점들이 이번 경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올 시즌 임무를 일찌감치 완료했으니 이러한 과정들은 모두 다음 시즌을 준비함에 있어 밑거름이 될 거라는 생각이다. 하여 바야흐로 휴식기에 들어가는 연변팀, 이기형 감독과 코치진에서 보완이 시급한 팀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후 이기형 감독 또한 부임한 후 홈장승이 없는 문제를 언급했다. "래년에는 홈장에서 승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홈장 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지막 경기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다음 시즌을 살짝 기약했다.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이번 시즌이 끝났을 뿐 우리에겐 또 다음 시즌이 기다리고 있다. "잘 준비해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이기형 감독, 올 시즌 중간에 합류해 잔류 임무를 완수하긴 했지만 아직 팀에 녹아드는 과정이라면 휴식기 동안 재정비하고 팀에 이감독만의 온전한 색갈을 입혀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해본다. / 김가혜기자

갑급리그 대단원의 막… 승격·잔류·강등 각자 갈길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가 지난 3일에 올 시즌 마지막 라운드인 제30라운드 경기를 펼쳤다. 따라서 제29라운드까지 안개 속이던 승격권 쟁탈전이 드디여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련이냐, 광주냐… 많은 팬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대련영박팀은 막판에 터진 극장꼴에 힘입어 6만여명이 몰린 홈에서 2 대 1로 상해가정회룡팀을 격파했다. 이날 승리와 함께 대련은 갑급리그 2위의 성적으로 다음 시즌 슈퍼리그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대련영박은 또 프로리그 3단뛰기를 실현했다.

한편 갑급리그 1위를 수성한 운남옥곤은 이미 사전에 승격을 확보한 상황이였다. 운남축구 또한 21년 만에 중국축구 최정상 리그에 팀을 배출하게 되였다.

두장의 강등 명액은 강서려산과 무석오구에서 나왔다. 마침 강등권이였던 두 팀이 막판에 만나게 되였는데 무석오구가 0 대 2로 강서려산에 패하며 련속 2년 강등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축구협회의 규정에 따라 무석오구는 보충 승격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강서려산도 비록 승리를 거두었지만 강등의 운명을 면하지는 못했다. 강서려산 역시 련속 2년 강등하며 보충 승격 자격을 상실하게 되였다.

하여 갑급리그 마지막 라운드 관전포인트는 사실상 '누가 슈퍼리그를 가냐' 하는 관건적인 승격권 다툼이였던 셈이다.

한장의 진출권을 놓고 대련과 광주가 엎치락뒤치락 막판까지 승부싸움을 벌였는데 54점의 대련영박팀과 52점의 광주팀은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립장이였다. 올 시즌 두 팀의 대결을 보면 광주가 홈과 원정 모두 대련을 전승한 전적이 있어 대련팀은 더욱 신경을 도사릴 수밖에 없었다. 두 팀이 승점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광주팀이 우선권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대련팀과 상해팀은 90분까지 1 대 1 무승부를 이어가다 딱 90분이 되였을 때 2005년생 나어린 선수 주붕우가 헤딩으로 극장꼴을 만들면서 2 대 1 승리와 함께 승격권을 거머쥐였다.

반면 광주팀은 경기 18분에 선제꼴을 터뜨리고도 큰 '욕망'이 없는 남경도시팀에 2 대 1 역전을 허용하면서 다음 시즌 여전히 갑급리그에 남게 되였다.

특히 이날 대련영박팀의 홈장에 6만 951명의 팬들이 몰려 만원 관중을 이뤘는데 이는 중국 프로축구 리그 사상 두번째로 6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은 경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갑급리그 최다 관객수를 기록했다. 이 경기전 최고의 기록은 올 시즌 갑급리그 제23라운드 대련영박팀 대 석가장공부팀(1 대 1)의 경기에 몰린 5만 6,595명이였다.

기록에 따르면 중국 프로리그 최고 관객수는 2012년 중국 슈퍼리그 제28라운드 강소(당시의 강소순천) 대 광주항대(현 광주팀) 경기의 6만 5,769명이다.

/ 김가혜기자

主管 / 主办 : 吉林日报报业集团　出版单位 : 吉林朝鲜文报社　印刷 : 吉林日报社印刷厂　地址 : 长春市绿园区普阳街 2366 号　邮编 : 130011　传真 :87627100　广告许可证 :2200004000046　定价 : 180 元 / 年
编务办 : 87619812　全媒体中心 : 87616700　发行广告管理部 : 87627091　延边记者站 :（0433）2518860　吉林记者站 :13069156625　梅河口记者站 :13604447151　白山记者站 :（0439）8224384　首尔分社 :+82（02）7868089